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639
----------	-----

발의연월일 : 2010. 9. 13.

발의자 : 채명지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1. 주 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복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을 살리는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렇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합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정보**의 명칭 변경을 요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강정의 지명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정보**가 건설되는 곳은 예로부터 강정마을과 강정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유서 깊은 지역이며, **강정보**는 옛 강정나루터(江亭津)의 부활인 것이다.

또한, 250만 대구시민의 소중한 식수원을 공급하는 강정취수보가 있던 지역으로써 이러한 강정의 지명 유래를 인용하여 정부에서 보의 명칭을 **강정보**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강정보 건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보가 대한민국 최고 명품보로 웅장한 위상을 드러내자 지금에 와서 **강정보**의 명칭 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강정보의 핵심시설과 통합관리센터 등의 중요시설이 달성군에 배치되고 현재 사업의 모든 공종이 강정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각종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지역명소로 거듭날 강정보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정보의 명칭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강정보의 명칭 변경 불가입장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강정보의 명칭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강정보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라.

하나,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정보 명칭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지역갈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명칭변경 불가입장을 조기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명품보로 선정된 강정보의 명칭 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18만 달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 제안이유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을 살리는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사업이다.
- 강정보가 건설되는 곳은 강정의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서 깊은 지역으로써 보의 명칭을 강정보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합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 명품보로 선정된 강정보의 명칭 변경을 운운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강정보의 명칭 변경은 있을 수 없으며, 명칭 불가 입장을 조기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3. 참고사항

- 결의문 배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시(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단), 언론기관 등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 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배 사 돌	배 사 돌	배 사 돌
하 용 하	하 용 하	하 용 하
김 기 석	김 기 석	김 기 석
정 수 현	정 수 현	정 수 현
채 명 지	채 명 지	채 명 지
김 길 수	김 길 수	김 길 수
송 성 열	송 성 열	송 성 열
김 옥 순	김 옥 순	김 옥 순